

한빛원전 방사능 사고 지자체 대응 빨라진다

영광군 등 전국 29곳 '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구호소 위치 등 실시간 정보... "주민에게도 공개" 주장

영광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러나, 원전 관련 시민단체는 원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영광군 등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원전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범위, 구호소 위치 등 지자체가 사고 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영상회의의 기능도 갖춘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전주변 29개 지자체는 평상시 원전가동상태 및 전국·지역별 환경방사선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별 비상대응활동을 비롯한 방사성물질 대기 확산 분포·방사성물질 오염지역 평가 등을 통해 산출한 오염 예상범위를 지자체가 즉시 알 수 있다. 대응기관 간 영상회의의 기

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영광·무안·장성·함평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군으로 총 13만 73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원전에 인접한 지자체들은 안전망 확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원전사고시 방사능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없어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영광군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기존에 한빛원전과 핫라인이 구축되긴 했지만 원전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영상회의의 시스템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훈련 등을 할 때 대피 경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정

보를 공유하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장성군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그동안 영광과 달리 인접 시·군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원전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며 "다자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지 않아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유대상을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원전 가동 현황 뿐 아니라 가동중지됐을 때 원인이나 문제점도 함께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반인들도 원전 관련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 해질녘 19:08 | 달뜨기 08:18 | 달지기 22:33

한낮엔 초여름
강한 복사 냉각에 의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7/25
목포	맑음	7/20
여수	맑음	10/21
나주	맑음	2/25
완도	맑음	7/22
구례	맑음	3/26
강진	맑음	3/23
해남	맑음	3/23
장성	맑음	2/25
보성	맑음	3/22
순천	맑음	8/25
영광	맑음	3/21
진도	맑음	5/21
전주	맑음	6/22
군산	맑음	5/18
익산	맑음	3/23
홍산도	맑음	8/25

지역	바다 날씨	기온
서해	맑음	0.5
남해	맑음	0.5~1.0
남해	맑음	0.5
남해	맑음	0.5~1.0
서해	맑음	0.5~1.0

날짜	날씨	기온
20(금)	맑음	11/22
21(토)	맑음	11/26
22(일)	흐림	14/20
23(월)	흐림	14/19
24(화)	흐림	12/18
25(수)	흐림	9/20
26(목)	흐림	10/21

5·18 무기고 지킨 문용동씨 기록물 보존

기념사업회 102점 5·18 기록관에 기증...내달 15일 시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지하에서 무기고를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故) 문용동(당시 27세) 전도사의 유품이 광주시에 기증됐다.

18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은 7층 세미나실에서 전도사 순교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와 기록물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념사업회는 문 전도사가 썼던 수첩과 일기, 노트 등 문서자료 24점, 사진 75매, 가방 등 유품 3점을 전달했다. 기록관은 협약에 따라 문서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영구적 보존·연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록관에 따르면 군 북부 때 폭약을 관리했던 문 전도사는 5·18 당시 시민군의 '폭약관리반'으로 활동했다. 1978년 7월부터 상무대 교회 전도사로 근무했던 그는 1980년 5월24일 김기석 계엄사 부사령관

을 만나 폭약 해체를 논의했다. 폭약이 터졌을 때 도청 반경 3km 이내 건물 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 폭약 봉치 2100개, 수류탄 450발의 신관을 제거했다. 이후 5월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압 작전 때 총상을 입고 숨졌다.

문 전도사는 사후 '프락치' 논란에 휩싸였다. 계엄군은 1980년 5월31일 '광주사태의 전모'를 발표하며 문 전도사를 '매수했던 부하노동자'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의인과 프락치를 놓고 문 전도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록관과 기념사업회는 문 전도사를 의인으로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일부 5·18단체 관계자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문 전도사의 유품은 기록관에서 다음달 15일 열리는 5·18기획전시 때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용동 전도사 유품 5·18 기록관에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문용동 전도사 순교기념사업회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기록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보올림피아드 출제요류 불이익 학생 구제

내일 전국대회 진출자 발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무더기 출제요류' <광주일보 4월18일자 7면>과 관련, 대회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출제요류로 불이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가능자 전원을 구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대회를

주관한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대회 진출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의제기 결과 등을 반영해 20일에 전국대회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에 개최되는 실기 기반의 전국대회에서는 출제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추가 확보, 검수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본선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열차 운임 30% 할인"

코레일 광주본부

코레일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가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차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광주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KTX는 오는 30일부터, 새마을호·무궁화호는 6월 1일부터(예매 5월1일 이후)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광주송정·광주역·목포·나주역 등 가까운 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할인된 좌석은 열차별 승차율로 한정되어 있으며, 승차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열차 이용 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과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출발 1일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

박석민 광주본부 영업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열차운임 할인 혜택은 전 역의 좌석이 아닌 승차율에 따른 제한된 좌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예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여수 고교생 햄스터 학대 영상 '시끌'

동물단체 "고발할 것"

전남의 한 고교생들이 햄스터를 돌로 내리쳐 죽였다는 신고가 동물단체에 접수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여수지역 고교생들이 햄스터를 잔혹하게 죽이는 영상이 전날 오후 접수돼 동영상 등장인물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모두 여학

생 3명, 남학생 1명이 등장하며 여학생이 "햄스터를 죽이라"고 말하자 남학생이 바위를 던져 맞는 장면이 찍혔다.

햄스터는 바위를 맞고 즉사했다. 가해 학생은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햄스터를 다른 친구들을 불러모은 뒤 괴롭히고 죽인 것으로 케어는 파악했다.

학생들은 SNS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으며 이 동영상을 본 또다른 학생이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 농업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인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